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산모 사망률 검토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를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

*산모 사망률과 인종 간 상이한 결과에 관한 태스크 포스의 주요 권고 사항 이행*

***2019년 여성 공평성 어젠다(2019 Women's Justice Agenda)의 주요 업적 기념***

***Cuomo 주지사: "인종 간 산모 사망률 격차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 전문가 검토 위원회와 자문 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문제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각 산모 사망 건의 원인을 검토하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향후 산모 사망 예방 및 건강 결과 전반 개선을 위한 전략 권고를 책임지는 산모 사망률 검토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를 설립하기 위해 오늘 법안(S.1819/A.3276)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뉴욕주의 모든 여성이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평등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인종 간 산모 사망률 격차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 전문가 검토 위원회와 자문 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문제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에 의학적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너무 많은 수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출산 과정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전역에서 불평등을 바로잡고 산모의 생명을 살리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산모 사망률 태스크 포스(Maternal Mortality Task Force)는 모든 각도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도록 돕고 있으며, 산모 사망률 검토 위원회 수립을 통해 각 산모 사망 건을 검토하고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성 어젠다(Women's Agenda)의 일환으로, 우리는 자주 비극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구조적인 인종 격차를 해결할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산모 사망률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로, 전국적으로 흑인 여성의 출산 중 사망률은 백인 여성에 비해 약 4배 더 높고, 뉴욕에서는 3배가량 더 높은

상태로 인종 간 격차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산모 사망률 46위를 기록한 2010년 이후부터 산모 사망률을 줄이는 데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산모 사망률 3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모 사망은 늘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 죽음이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이라면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뉴욕주는 이 우선적인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있고, 이러한 죽음을 줄이고 산모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 이슈를 파악하는 데 참여하는 주요 파트너가 있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상원 보건 위원회(Senate Health Committee) 의장이자 이 법안의 후원자인 Gustavo Rivera 뉴욕주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참하게도 뉴욕주의 너무나 많은 여성, 특히 흑인 산모들이 죽어가고 있고 출산 후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S.1819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주는 공공 보건 위기를 줄이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 및 실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유색 인종 여성, 특히 극심한 빈곤 지역의 여성이 높은 산모 사망률 및 질병률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도록 하는 인종 간 격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Latoya Joyner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산모 사망률 검토 위원회는 뉴욕의 훌륭한 보건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주 전체 여성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역사상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 사회의 주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대표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의 구성은 뉴욕의 여성 보건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공공 보건 이슈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위원회는 뉴욕주의 모든 산모 사망건을 검토할 것이며, 환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산모 사망률 및 질병률을 줄임으로써 산모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정책 및 우수 사례를 권고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특히 인종 및 경제적 격차를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정확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해당 지역 사회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보건부에서 지역 사회 기관, 공공 보건 전문가, 임상의, 상이한 산모 건강 결과에 가장 영향을 받는 개인들로 구성된 지역 사회 주도의 산모 사망률 자문 위원회(Maternal Mortality Advisory Council)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산모 사망률 자문 위원회는 인종 차별과 암묵적 편견과 같은 근본 원인 등 산모 건강 결과의 격차를 야기하고 심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결정 요인을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뉴욕주 산모 사망률 검토 위원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산모 사망률 검토 위원회는 여성과 여자아이에 대한 주지사 자문 위원회 및 산모 사망률 및 상이한 인종 간 결과에 대한 태스크 포스의 권고 사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 전역의 여러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 그리고/또는 그 사회를 대표하는 여러 전문 분야의 의료 서비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주지사는 산모 사망률을 낮추고 인종 간 상이한 결과를 줄이기 위해 태스크 포스를 만들고 기타 프로젝트를 여러 건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정된 예산에는 보건부의 산모 영아 지역 사회 보건 협력(Department of Health's Maternal Infant Community Health Collaboratives)을 통해 주 전역 고위험 지역의 지역 사회 의료 종사자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데 사용하도록 200만 달러 이상의 예산뿐만 아니라 산모 사망률 검토 위원회와 산모 사망률 자문 위원회 등 태스크 포스 권고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2년간 800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인(community health workers, CHWs)은 사회적 지원, 정보, 옹호,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타 진행 중인 주정부 활동과 연계된 이 새 법안은 산모 사망률을 줄이고 인종 간 상이한 결과를 개선하는 데 있어 리더로서 뉴욕의 노력을 더욱 진전시킬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